

중소기업 생산환경 개선 260억 지원

중소기업청은 직무기피요인 해소장비 및 공정혁신 범용장비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에 26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제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R&D를 통해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2002년부터 도입됐으며 그동안 고용인력 유입(업체당 3.03명) 효과 외에도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품질향상 및 생산성향상 등의 효과로 인해 수요자 만족도(94.4%)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직무기피 요인해소사업과 공정혁신사업을 통합해 사업명칭을 '생산환경혁신 기술개발사업'으로 변경하고 기술개발 범위를 생산공정 자동화부문까지 확대해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편했다고 중기청은 밝혔다.

중기청은 이 사업을 통해 개발된 우수장비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보급·확산과제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수시 지원토록 하고 개별기업도 신청 가능하도록 했으며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신규 장비 구입 및 교체비용은 정책자금인 경영혁신자금의 시설개선사업에서도 업체당 30억원 한도로 용자를 통해 지원키로 하는 등 정책자금 융자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했다. 또 기존 방문을 통한 사업 신청·접수방식에서 기술개발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체제로 변경하는 한편 개발성공과제에 대한 기술료 징수율을 현행 30%에서 20%로 인하했다.

벤처특별법 10년 연장

정부는 올해로 만료되는 10년 한시법인 벤처특별법을 개편, 10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인수합병(M&A)과 가업승계 활성화 방안도 적극 검토, 추진하는 한편 중소기업을 위한 마케팅·R&D 지원과 중소기업 중심의 취업교육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열린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7대 신규추진과제'를 포함한 '777 전략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중기청은 우선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법률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 만료되는 '벤처특별법'을 10년간 연장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3월 중순께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벤처특별법 연장에 따른 '2기 벤처정책'에서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와 벤처기업 우선신용보증제도 등 기존의 직접 지원책을 폐지하는 대신 벤처캐피탈과 같은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시장 친화적 벤처환경 조성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또 성장한계에 이른 중소기업들이 가업 승계와 M&A 등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가업승계 기업의 상속세 감면과 M&A 거래당사자 세제 지원 등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기로 하고 관계부처 협의

를 통해 하반기 중 세부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마케팅 및 R&D 지원도 확대된다. 중기청은 '마케팅 기획 정보시스템'과 '국가·분야별 수출전문가 통합 DB'를 구축, 수출중소기업들이 제품별 생산업체와 유통 등 관련 서비스를 검색하거나 수출 전문가 활용시 이용토록 할 계획이며 자체 A/S망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A/S콜센터'도 운영키로 했다.

신기술 예정기술 34개 선정

과학기술부는 ㈜산청의 산소 자동공급 시스템을 적용한 휴대용 인공호흡기 기술 등 34개 기술을 신기술(NET) 예정기술로 선정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분야별로 △기계·소재 10개 △전기·전자 9개 △화학·생명 7개 △건설·환경 5개 △정보·통신 2개 △원자력 1개 등이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신기술 예정기술이 선정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기술이 24개로 가장 많고 대기업 기술 7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동 신청한 기술이 3개였다. 과기부는 또 신기술 인증기간 연장을 신청한 2개 기술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기간 연장이 가능한 기술로 평가했다.

과기부는 신기술 예정기술 및 기간연장 신기술에 대해 이해 당사자의 이의신청과 3차(종합)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 4월 신기술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2010년까지 공고생 1만명 취업전망

정부는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산업현장과 연계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2010년까지 1만명의 취업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내 대학의 해외 분교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영어강의 및 외국인 교수 채용 비율을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 때 반영하는 등 고등교육 국제화를 촉진하는 방안들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12개 정부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 현장의 기능직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범 실시된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공업고교와 중소기업이 협약을 체결해 졸업 후 취업을 전제로 중소기업의 직무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해 1160명의 학생이 이 사업에 참여했다.

정부는 이 사업에 올해 1500명(50개교), 내년부터 2010년까지 7300명(240개교)을 추가로 참여시켜 총 1만명의 공고생을 맞춤형 인력으로 육성해 전원 취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중기청, 대학생 중소기업체험사업 지원

중소기업청은 대학생들에게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한 체험프로그램 사업에 23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대학과 중소기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체험프로그램은 4년제 이공계 대학생이 방학기간 혁신형 중소기업에서 연수 후 학점을 이수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연수'와 대학에서 중소기업CEO가 강의하는 '성공 중소기업 CEO 대학강좌', 1~3일 단기 체험프로그램인 '중소기업 아카데미' 등이다.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나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중소기업·서비스업관련 협동조합 78곳을 대표해 '신용카드 수수료인하 추진대책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했다. 추진위는 앞으로 업계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를 위해 발벗고 나서기로 했다.

중앙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규모가 영세하고 대외협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서비스업자의 경우 신용카드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가맹점 수수료율을 협상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번 중앙회는 중소기업·서비스업자의 카드수수료를 협상채널 및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추진위원회 위원은 총 16명이며 위원장에는 김경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과 조길중 한국컴퓨터시설관리협회협동조합 이사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계속된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서비스업자들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있어서도 대기업보다 지나치게 높아 경쟁개선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며 "추진위는 앞으로 중소기업·서비스업자들의 가맹점 수수료율 부담을 낮춰 영세점포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겠다"고 말했다.

15개 조합 인력구조고도화 추진

지난해 중소기업청이 추진한 인력고도화사업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에는 15개 업종별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인력고도화사업이 시행된다. 중기청은 지난해 37억5천만원을 투입, 20개의 업종별 협동조합을 통해 인력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했으며 4349개 중소기업 및 1만1223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전문가를 활용한 현장기술교육, 경영혁신교육 및 기술교재개발보급 등을 실시해 큰 효과를 봤다고 최근 밝혔다.

중기청은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29억원을 투입, 15개 내외의 조합을 통해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이미 마련된 인력구조 고도화를 위한 표준 매뉴얼을 참여조합에 제공, 타 조합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학습조직 구축 쉬워진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인력이나 경비, 정보 등이 부족해 업무를 내지 못했던 기업내 학습조직 구축과 우수훈련기관의 고급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노동부는 중소기업이 직무와 관련해 소그룹 학습모임 활동을 하는 경우 강사료, 교재구입비, 학습 기자재 구입 비용 등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법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 기업에서 근로자 5명 이상이 소그룹을 형성해 경영성과 개선 및 직무와 연계된 학습활동을 하는 경우 소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올해 예산을 지난해 78억원보다 28.2% 늘어난, 총 100억원을 투입, 150개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외부강사비, 교재구입비 등 학습활동에 소요된 비용(최대 4천만원) △인력개발 전담자 채용시 인건비(연간 최대 2040만원) △PC, 빔 프로젝트, 가구류 등 학습공간 마련비용(최대 2천만원) △현장훈련(OJT)프로그램 설계 및 컨설팅 비용(최대 800만원) △7일 이상의 근로자 학습휴가제도 도입시 장려금 지급(최대 300만원) 등이다. 또 중소기업근로자에게 필요한 양질의 훈련과정이 무료로 제공되고 기업에게는 인건비의 일부가 지원된다. 기업에 지원되는 인건비는 훈련시간에 최저임금액(시간급)의 2배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올해 169억원의 예산을 투입, 1만8천여명의 근로자에게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출중소기업에 4조1천억 지원

신용보증기금(KODIT)은 수출기업의 경쟁력강화 및 환율하락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2006년 말로 종료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연장 시행하는 한편, 올해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총 4조 1천억원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코딧의 수출 중소기업 특례보증 대상기업은 △당기매출액의 30% 이상을 수출하는 수출중소기업 △중소기업청 선정 수출유망 중소기업 △수출기업화사업 참여기업 △환위험관리 우수 중소기업 및 기타 대외 유관기관이 추천하는 기업 등이다.

지원대상 자금은 무역금융과 일반운전자금으로 최고 보증한도는 무역금융의 경우 같은 기업당 70억원, 일반운전자금의 경우 30억원까지이다. 매출액 한도 적용시 최고 당기매출액(또는 직전 4분기 매출액)의 50% 또는 추정매출액의 50%까지 우대해 지원되 신용등급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한다.

코딧 관계자는 "특례대상을 지난해에는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으로 운용했으나 이번에는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기업으로 확대해 중소기업들의 보증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조치로 엔화가치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들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연구장비 이용 쉬워진다

앞으로 연구개발에 필요한 고가의 연구장비를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이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고가 장비를 활용할 경우 소요 비용의 60%를 정부가 발행하는 바우처를 통해 지원받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2005년말 현재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1천만 원 이상 연구장비는 12만여종(시가 5조3천억원)에 달하지만 중소기업 등 외부기관과 공동 활용한 장비는 5천여종에 불과한 실정이며 특히 중소기업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를 절반도 구비하지 못한 기업이 전체의 50.5%에 이르는 등 연구 장비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장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연구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대학·연구기관의 장비를 공동 사용하면 중기청이 사용료의 60%를 부담하게 된다.

주관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 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연구장비·인력종합검색시스템(trin.smba.go.kr)에 접속해 장비 사용료의 40%만 부담하고 바우처를 구입한 후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 장비를 보유한 주관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제출하고 사용하면 된다.

2007년도 산업기반자금 805억원 지원

기계산업진흥회는 산업자원부의 '2007년도 산업기반자금'이 확정됨에 따라 부품·소재육성 및 환경친화적 산업기반조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신청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기계, 전자 등 핵심 부품·소재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전략 품목 육성을 위한 부품·소재산업 육성부문에 750억원, 청정생산, 환경설비 및 재제조제품, 자원재활용 관련시설에 관한 환경친화적 산업기반조성 부문에 55억원이 지원된다.

지원조건은 시중은행의 신규대출 가중평균금리 6.19%보다 낮은 4.75%(부품소재)~5.0%(환경) 금리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이며, 융자 한도액은 업체당 20억원이다. 융자사업자 선정은 사업의 타당성, 설치시설의 중요도, 생산성향상도와 국제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고도화에 기여하고 수출증대 효과가 큰 품목을 대상으로 사업화 가능성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해 지원한다.

해외 수출인큐베이터 개방 확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수출을 위해 해외에 단기 출장가는 기업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중진공이 운영하고 있는 15개 수출인큐베이터의 공동 공간을 별도의 신청없이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SBC

Trade Card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수출유망 중소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며 중진공은 소정의 평가를 통하여 3월말까지 300개 지원기업을 1차로 선정할 계획이다.

중진공은 중소기업들의 높은 수출성과와 호응 속에 10개국 15개소의 수출인큐베이터를 운영하고 있다. 수출인큐베이터는 특히 단기간 해외출장을 가는 기업들을 위해 수출사랑방을 운영 중으로 이용기업은 수출인큐베이터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개별 상담진행시 보다 높은 수출성사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은 수출인큐베이터 홈페이지(www.sbc-kbdc.com)에서 할 수 있다.

산업자금 서비스업에 편중

지난해 산업대출금의 서비스업 편중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조업의 산업대출금 비중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쳐 산업자금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6년중 예금은행의 산업대출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예금은행의 산업대출금 잔액은 353조2080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44조7991억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가계대출 증가액 40조7084억원을 추월한 것이다.

산업대출금 증가액이 가계대출을 추월한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산업대출 증가액 중 60.3%에 달하는 27조322억원이 부동산·도소매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에 집중됐으며 건설업도 18.0%에 해당하는 8조521억원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 대출 증가율은 18.6%, 건설업 대출 증가율은 32.9%에 달한 반면 제조업 대출은 8.3% 증가한 9조9688억원에 그쳤다.

기업 56%, "현재 업종에 회의적"

기업들이 자기 업종의 미래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매출액 500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이 보는 미래유망산업 전망과 육성정책'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업종이 미래유망산업'이라고 인식하는 비중이 44.4%로 미래유망산업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는 비중(55.6%)보다 낮게 나타났다. 상의는 "현재 기업들이 미래유망산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대부분 기업들이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못한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중소기업들 중 18.2%만이 '우리 업종의 미래가 유망하다'고 밝힌 반면 81.8%는 '미래유망산업이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83.0%)과 제조업(58.0%)이 서비스업(44.3%)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체 업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대출 수도권 편중 심화

지난해 금융기관 대출의 70% 이상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6년 지역별 금융기관(예금 및 비은행기관) 대출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대출금(잔액 기준 전년 대비 증가액)은 78조7681억원으로 전체(112조2099억원)의 70.2%를 기록했다. 금융기관의 수도권 대출규모는 2004년 56.6%, 2005년 67.8%로 매년 증가 추세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확대된데다가 신도시 아파트 분양에 따른 가계 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과 지방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서울지역 대출금이 41조1584억원으로 지방(37조6097억원)의 절반 정도이다.

지방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37조6097억원(33.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영남(19조9736억원, 17.8%), 충청(6조8388억원, 6.1%), 호남(4조5831억원, 4.1%) 등의 순이었다. 예금은행(시중·지방·외국은행 등)과 비은행금융기관(증권·신탁·상호저축·수출입은행)의 서울과 지방 대출비중은 예금은행의 경우 지방이 66.7%로 높았으며,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지방이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52.6%)이었다.

기업 10곳 중 3곳 '출혈수출'

원화 가치 상승으로 국내 수출기업 10곳 중 3곳은 이미 적자를 보며 '출혈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이 최근 전국 451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1/4분기 수출전망지수 및 수출경기 동향'에 따르면 수출기업의 손익분기 환율은 평균 달러당 92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손익분기 환율이 '950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곳은 21.3%, '940원 내외'라는 응답은 4.0%였다. 지난달 28일 현재 원·달러 환율이 941.8원(증가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수출기업 가운데 28.3%는 수출을 할수록 적자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업종별로는 섬유류 수출기업의 35.5%가 이미 손익분기 환율을 넘은 것으로 나타나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철강·비철금속 수출기업의 30.7%, 자동차업종의 29.7%, 전기·전자업종의 27.3%도 손익분기 환율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입은행은 "수출기업 중 24%는 달러당 950원 내외를 손익분기 환율로 보는 반면 21%는 900원 내외를 손익분기 환율로 보고 있어 수출기업 간에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걸돈다"

1조원에 달하는 나랏돈이 투입되고 있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산이 핵심원천 기술개발에 쓰이기보다는 단순기술 개발에 집중되거나

'무늬만 R&D지원이지 사실상 중기 보조금 형태로 뿌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열린 기획예산처의 토론회에서 김갑수 산업기술재단 기술정책연구센터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정부의 R&D 총예산이 10조원 시대로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한 R&D예산도 1조원 시대로 들어섰다"면서 "이는 우리나라보다 재정 규모가 큰 일본의 2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센터장의 분석 결과 중기 R&D 예산지원은 많은 과제에 소액 형태로 이뤄져 핵심기술 개발에 활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의 경우 8285억원이 투입됐는데 중소기업 4881곳(5606개 과제)이 이를 나눠 가졌다는 것이다. 기업당 지원액은 1억7000만원에 머물렀고, 기술개발도 핵심원천기술이 아닌 단순기술에 집중됐다는 게 김 센터장의 분석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대학 학자금 지원

대학에 재학 중인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학자금이 지원된다. 노동부는 '07년도 학자금지원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전반기는 4월 9일부터 20일까지, 하반기는 9.3~9.14일까지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재직근로자로서 당해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이고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학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폴리텍대학, 평생교육시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에서 정규학위과정(전문·산업학사,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서 신청시점 前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학기당 200만원까지이고 1인당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는 지원신청서에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 지원제도 '2007 핸드북' 발간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종합정보가 담긴 '2007년 중소기업지원제도 핸드북'을 발간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책은 중소기업 CEO나 실무담당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종합안내서로, 자금, 신용보증, 판로확대, 수출, 인력, 세제, 컨설팅 등 관련된 정보가 총망라 돼 있다는 게 중진공측 설명이다. 정책자금은 용도에 따라 창업자금, 기술개발사업화자금, 경영혁신자금 및 안정자금, 기업간협력사업자금 등으로 분리해 게재했으며, 신용보증지원, 판로수출, 정보화, 컨설팅, 여성, 장애인분야까지 총 8개 섹션, 77가지의 지원 내용이 수록됐다. 책자는 시중 대형서점에서 9000원에 판매되며, 관련 문의는 중진공 조사연구실(02-769-6627)로 하면 된다.